

# 시장형 일자리... 교계 노인 취업 대안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탓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시만해도 25개구 중에서 22개구가 재정고갈을 호소하며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신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제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시장형 노인 일자리에야 한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종. 대개 농산물판매, 밀반찬 판매, 유기농식당 등으로 요식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서울 종로구청내에 자리한 플러스카페(Plus Cafe)는 서울시 고령자기업 창업지원 대상 지원금을 받아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다.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6,70대 어르신 7명이 커피, 허브티, 생과일주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다. 지난해 1월 개설한 이후 1년 동안 올린 매출은 1억4천여만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1천여만원의 순매출을 올렸다. 어르신들은 5시간씩 주 2~3회 일하고 월 30만원을 번다.

안창배(65)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하나. 커피에 대해 새로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나이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며 만족감을 표시한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이 브랜드화된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산하 용인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휴)브랜드는 카페, 식당, 분식집 등으로

특화돼 지점별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용인시 처인구청에 생긴 '카페 休'는 2012년 수지구청, 기흥구청에 잇따라 개점했다.

수지구청 구내식당에 위치한 '계절발상 休&청춘주먹밥' 사업 역시 순항중이다. 천연조미료 사용을 내세우며 건강식단을 자랑하는 덕에 매출도 호조세다. 지난해 10월 말 오픈해 현재까지 약 1억여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올해 1월부터는 곡물스낵제조장 '백옥 美 마을'도 생겼다. 용인시 특산물인 백옥 쌀과 농산물을 이용, 22명의 어르신들이

## 판매·제조·서비스 등

## 수익 창출형 노인 일자리

## 저렴한 가격 높은 상품 신뢰도

## 노인상 정립에 긍정적 효과 특목

두부과자, 라이스낵, 비즈쿠키 등을 직접 제조한다. 백옥미 마을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이 협업한 사례. 연면적 164.64㎡(약 49평)에 달하는 토지는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상 2층 건물의 건설비와 운영비는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에서 부담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살려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추세다. 타 사업과는 달리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품 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저렴한 가격 또한 주요 경쟁력이다. 플러스카페 커피가격은



서울 종로구청내에 위치한 플러스 카페. 70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있는 이곳은 지난해 매출 1억 4천여만원을 기록했다.

인근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반값인 1900원, 휴식당 점심 밥상은 4500원이다.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상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방베이커리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 맛 좋고 가격 저렴하기 위해 소문난 이곳은 사업 성공에 중요한 지역 민과의 상호작용에서 합격점을 받아 지난 달 복지부에서 예산 3천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플러스카페를 이용하는 이주현(35)씨 역시 "다른 곳보다 정감가는 곳이다. 어르신들이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제 몫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노인복지관측도 긍정적 노인 이미징 형성에 기여하고 수익성도 있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앞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플러스카페 채용경쟁률이 20대이었다는 점만 봐도 어르신들의 관심도는 이미 확보된 상태. 일반 환경미화나 공공근로 등에 비하면 직무만족도 역시 높은 편. 내년에는 최저시급에 맞춰 어르신들 임금 역시 인상해야 하지만 큰 부담은 없는 편이다. 이런 이유로 종로노인복지관측은 올해 안에 플러스카페 2호점 개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시니어클럽 역시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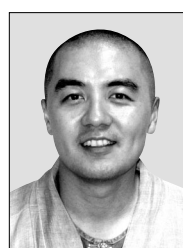
# 헤민 스님과 함께 마음치유를

## 8월 22일 사회복지봉사자 대상 힐링 콘서트

불교계의 멘토인 헤민 스님(사진)이 불교사회복지 봉사 인력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콘서트를 진행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사회복지시설 봉사자와 조계종자원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헤민 스님의 강연을 개최한다.

바쁜 업무와 대인간 스트레스로 지쳐있을 사회복지시설 봉사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강좌인 만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나와 타인의 삶의 변화를 생각하며 사회복지의 참된 뜻을 새길 수 있다.

헤민 스님의 재능 나눔으로 진행되는 이번 마음치유 콘서트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전국 160여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 혼자 보다는 여럿이 좋아~

## 길음 소리마을, 소셜 다이닝 등 행사 풍성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관)에서 운영중인 길음주머니센터 소리마을에서 8월 다채로운 행사로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우선 8월 22일과 29일에는 무료 영화관이 열린다. '과속스캔들' '박물관은 살아있다' 등이 오후 7시부터 길음소리마을센터 지하 1층에서 상영된다.

이어 8월 26일에는 까나페, 샌드위치, 화채 등을 만드는 음식만들기를 통해 참여자와 함께 작은 다과회가 진행된다. 이른바 소리마을 '작은축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며 1인당 참가비는 1천원이다. 선착순 30명 대상이다.

혼자 밥 먹기 싫은 이들을 위해 마련되는 '행복한 저녁밥상'도 있다. 근래 유행

하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을 본뒀다.

소셜 다이닝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밥먹는 문화가 저변 확대되며 여럿이 어울리는 식사를 통해 인간관계를 쌓아보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문화다.

8월 27일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1인당 반찬 1가지 이상만 가지고 참석하면 된다. 이웃과 함께 밥 먹으며 친해지고 싶거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02)919-3838

배현진 기자

# 고독사 예방 공동거주 프로젝트

## 본동복지관, 노인의 집 후원자 모집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중성)은 동작구 내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의탁 노인들이 기거하는 '변영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변영노인의 집은 서울 동작구 변영경로당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했다.



무의탁 노인들이 기거하는 '변영노인의 집'

주거지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3명이 공동 거주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지원받고 있다.

윤0 어르신은 "오갈데 없이 힘든 우리에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 남은 노후를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나

누고 봉사하며 살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나 한정적인 재원 탓에 변영노인의 집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관측은 "지역 내 다양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후원자와 자원봉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817-8052

배현진 기자

# 구성원 달라도 모두 같은 가족

##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 공모전 접수 9월 1일부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제 4회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가족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구성원은 달라도 모두 행복한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산문·그림·사진과 한부모가족 자립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훈훈한 이야기 △한부모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행동하는 가족의 이야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및 양육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에 성공한 이야기 등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산문은 A4용지로 2매 이내로 작성하면 되고 사진은 스토리를 작성해 2점 이상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부상은 총 370만원으로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장 및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되며, 그 외 12명과 1기관에 게도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접수된 작품은 향후 한부모가족인식개선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공모전 참가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9월 1일~10월 10일까지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오늘은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화장품이라야 가루분과 립스틱이 거의 전부였던 어르신들이 속눈썹을 붙이고 립브러시로 입술을 그리는데 재미에 빠졌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에서는 10명의 어르신들이 지난 6월부터 무대 화장봉사단 교육을 받고 있다. 가아름, 난타, 풍물 등 예능 실력을 갖고 뛰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70여명의 공연 메이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무대화장봉사단원들은 남은 한 달간의 교육을 거치고 복지관 후원 및 자원봉사 송년의 밤, 발표회, 지역행사시 출연진들의 메이크업을 직접 하게 된다. 수업이 끝나면 어르신들은 절제 철한 아이세도우가 마음에 든다며 집으로 향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배현진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목,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9월 15일 까지

◆개강일시 : 2014년 9월 1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단기속성 3개월과정 (4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 ④ 채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담,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개달음의 법(法) · 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